취재사례비가 내란음모자금으로

太刀川正樹
(다찌가와 마사키)

*다찌가와님은 일본의 「주간 현대」 기자로 이철, 유민태씨를 취재하고 약간의 취재사례비를 지급한 것이 민청학련운동에 일본 좌익의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조작되어 구속되었다. 석방 후 일본에 돌아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1974년 4월 5일 오전

그날 아침 9시 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안에는 나와 처(李相淑) 둘뿐이었다. 우리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5분쯤 후에 다시 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처가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새파래진 얼굴로 되돌아와 나를 주시하며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다. 처의 뒤를 따라 점퍼 차림의 남자 네 명이 들어왔다. 호텔방의 침대 끝에 멈추어 선 맨 앞쪽의 남자가, "다찌가와 마사키씨지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어 사무소까지 임의출두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유창한 일본어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한국어로 씌어진 신분증명서의 문자를 읽어달라고 하자, 그는 신분증명서를 보는 것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식으로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는 이틀 전인 4월 3일 오후에 입수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유인물 때문이구나 하고 직감하였다. 처는 내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 얼굴과 본 적도 없는 침입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들 중의 한 명은 내가 이전에 모지(某紙) 특파원의 지국에서 보았던 얼굴이었다. 나도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농담조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군요"라고 말하자, 지국에서 보았던 남자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니 아무 걱정 마세요"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 전에 일본대사관에 이 일에 대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만……" 하고 이야기하자, "아니오. 그저 15분 정도면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무실에서도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처를 쳐다보며, 이 방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남자는 바로 옆에서 처도 연행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하였다.

남자들은 딱딱한 표정을 풀지 않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내가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면서, 때때로 방 모퉁이에 놓여진 슈트케이스와 종이봉지 쪽으로 눈을 돌렸다. 종이봉지에는 내가 유인태군(서울대 졸)으로부터 받았던 유인물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짐을 들게 하고, 우리는 유인물이 든 종이봉지와 처의 하복이라든지 셔츠가 든 슈트케이스를 들었다. 내가 무게가 가벼운 종이봉지를 처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처가 들었을 경우에 유인물의 소유자가 처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짐은 그밖에도 처가 결혼할 때에 가져온 혼수품의 하나인 꽃모양의 자수가 있는 방석 다섯 장이 있었다.

차 안에서는 우리의 양 옆에 남자들이 앉았다. 차는 서린호텔(서울시내 무교동 동아일보사 옆)에서 서울역 앞을 지나 미 제8군 사령부가 있는 용산 바로 앞, 삼각지 근처에서 멈추었다.

빌딩 옆의 골목길로 들어가 1층이 캬바레인 4층 건물의 3층으로 끌려들어갔다. 3층에는 안을 들여다보이지 않는 방이 다섯 개 정도 있었는데, 나와 처는 각각 다른 방으로 들여보내졌다. 나와 한국인인 처와는 일체 말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분리되어 버렸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간이침대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10분 정도 혼자서 기다리게 한 후, 건장한 체격에 안경을 걸친 역시 점퍼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일본인과 완전히 똑같은 일본어로, "오늘(4월 5일, 식목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피크닉을 갈 예정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불려오게 되었다"고 싹싹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왔다.

나는 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대답은 하지 않고 나를 다른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거기에는 눈매가 예리하고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차가운 느낌을 가진 45세 정도의 남자가 응접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앗! 이 사람은 취조(取調)의 프로다'라고 느끼고, 앉기 전에 "여기가 CIA입니까?"라고 묻자, 남자는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치안국 외사과의 특별기동수사대라는 곳입니다. 내가 대장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정중한 어조였다. CIA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서 '후' 하고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내가 다시 일본대사관에 연락하고 싶다고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대답하여 주십시오. 다찌가와씨, 이 유인물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내가 입수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의 결의문, 그리고 「반일반독재민족선언」 유인물의 복사본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옆에 놓여져 있는 종이봉지 안에 유인물이 있다는 것은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체념하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장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종이봉지 안에……"라고 말하자, 다른 수사관이 종이봉지 안에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유인물이 테이블 위에 죽 펼쳐졌다.

대장은, "이것을 어디에서 입수하였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민중의 소리」 「언론인 · 종교인 · 지식인에게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의 한글 문자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하고 나서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그 대답이 당연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소리를 낮추고 결의를 촉구하듯이 말했다.

"협력하여 주십시오. 협력하여 주시면 예정대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침묵을 계속 지키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처도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고 있을 것이다. 나는 거짓 진술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거짓 진술을 하기 전에, 나는 처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교환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처가 수사관을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새파래져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수사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겁을 내면서 내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갑작스런 연행으로 나도 얼이 빠져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었고, 처마저 이 위험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는 두려운 기분에 빠져들었다. 처를 귀가시킨다며 수사관이 처를 데리고 나갔다. 나는 멍청하게도 처가 귀가하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취조가 있었다고 후에 그녀는 나에게 실토하였다.

조사는 3월 31일의 입국시점에서부터 4월 3일까지의 행적(4일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다)과 유인물의 입수처가 중심이었다. 여권을 압수당하였지만 신체검사는 당하지 않았다. 여권은 관광비자의 스탬프가 찍혀져 있었다.

과거에 나는 관례적으로 관광비자로 취재를 했었고, 관광비자의 체재연장신청을 할 때에도 취재선이나 취재목적 등을 기입하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국목적 위반이라는 클레임을 제기받은 적은 없었다.

지난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시행된 이래, 일본인 기자의 취재행동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보내지는 정보가 격감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여 저널리스트라고 쓰면 김포공항에서

제지당하였을 것이다.

대장의 질문에는 유인물 입수처에 관해서도, 우연히 알게 된 학생에게 받았으며, 학생의 이름은 조모(趙某)이고 상대의 연락처는 모른다,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나의 서울 숙소인 남양(南陽)여관에 내가 서울에 와 있는지 어떤지를 전화로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마침 연락이 이루어져 유인물을 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속였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은 수사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다. 나의 대답은 전혀 신용받지 못하였다. 대장은 이쪽을 보면서, "더 이상 협력하여 주지 않으면 당신의 부인과 그 가족도 긴급조치위반 공범으로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라고 엄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이전에 한국 관헌의 인정사정없는 심문이라든지 무시무시한 고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전기고문, 물을 끼얹어 질식시키고, 곤봉으로 때리고, 로프로 공중에 매다는 등의 광경을 상상하였다.

"중앙정보부(CIA)에라도 끌려가면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어요, 정말로"라고 하면서 소름이 끼친다는 얼굴 표정을 하는 한국인을 그때까지 종종 만났었다.

나는 처가 지금, 어딘가에서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두들겨 맞거나 협박당하거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다.

처와 그 가족들이 구속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일본인이지만 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인이다. 처는 일본에서의 결혼식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나 혼자만을 위해 처의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 모처럼 노력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유인물 한 장이 인간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때까지 서투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사이, 제공되는 커피, 담배 등을 계속해서 먹고 마셨다. 하지만 점심식사로 나온 자장면은 목구멍을 넘기지 못하여 한 입 먹고서 남겨 버렸다. 자장면은 한국에서

는 대중적인 식사로 나도 어느 사이엔가 자장면을 대단히 좋아하게 되었다.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매일 이것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나는 계속 팔짱을 끼고, 내면의 동요를 억누르려고 하였다.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잡담도 주고받았다. 나는 자신의 불안을 얼버무리기 위해 때로는 큰 소리로 웃었다. 수사관은 정영하(鄭英夏)라고 하는 주임형사로 약간 통통한 체형을 갖고 있고, 호감이 가는 스타일로 이야기하였다. 그는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을 신문기사를 앞에 두고서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당신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커피가 마시고 싶은가, 아니면 주스가 좋은가. 어때? 한국의 경찰은 친절하지 않은가?"

그는 한결같이 이쪽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디에서 조사해 온 것인지 잇따라 질문이 있었다. 4월 3일 오전 11시, 내가 서울 문리대에 데모 현장 사진을 찍으러 갔던 일, 더 나아가 내가 데모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대사관과 일본의 모(某) 신문 특파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받은 일, 서울 시내의 호텔에 근무하는 지인의 이름 등이 갑자기 내 앞에 던져졌다.

나는 호텔에서 연행될 때, 촬영이 끝난 필름 3통을 숨기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넣어 둔 채로 있었는데, 조사 중에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두 통을 감광(感光)시켰다. 몰수당하여 데모에 참가했던 학생의 증거사진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필름은 다음날인 6일에 몰수당하였다.

내 머리 속에 4월 3일 아침 서울 문리대에서의 데모 광경이 떠올랐다. 그 전날, 유인태군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73년 12월 말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수면부족과 도피생활에 지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대기하고 있었던 남양여관의 방으로 들어오자, "내일 아침 11시, 서울 시내의 각 대학에서 일제히 데모를 한다. 목적은

학원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다"라고 통역을 해주었던 하야가와(早川)씨를 통하여 나에게 알렸다.

시간이 없다고 한다. 하야가와씨가 한국어로 무엇인가 말하자 유군은 봉투 안에 들어 있던 유인물을 보여주었다. 결의문이었다. 게다가 「민중의 소리」「민중 · 민족 · 민주선언」 등도 있었다. 아직 잉크 냄새가 마르지 않은 등사판 인쇄의 문자는 군데군데 희미해져 있었다. 하야가와씨에게 들은 설명에 의하면, 유신체제 비판, 학원의 민주화 등의 슬로건을 가지고 민주회복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일 아침의 데모를 상상하며 메모를 하면서 흥분하고 있었다. 데모가 실제로 성공한다면,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행운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도 한국 학생운동의 지도자가 우리들에게 그 데모 계획을 사전에 밝혀준 마음이 고마웠다. 우리들은 옆방에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하였다. 유인물을 원한다고 부탁하자 3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내일 아침 데모 현장에서 살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가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데모가 실패했을 경우의 일도 생각하여 무엇인가 손에 넣고 싶다고 말하자, 3일 오후 2시에 남양여관에서 만나 주기로 하였다.

나는 취재 사례라는 의미로 2천 5백원(1엔 = 1.5원)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하야가와씨에게 이전에 취재 사례로 제공한 1만원 중에서 5천원을 다시 빌어 합계 7천 5백원(5천엔)을 유군에게 건넸다. 그는 하야가와씨의 얼굴을 살피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하야가와씨는 그에게, 일본에서는 이럴 때에는 취재 사례로서 제공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괜찮지 않은가 하고 설명하자 유군은 안심하는 듯한 얼굴로 돈을 받아들었다.

다음날인 3일 아침, 10시에 나는 벌써 서울 문리대에 도착하였다. 이미 정보가 경찰에 새어나갔는지 헬멧, 마스크, 진압복(방석복)으로

무장한 기동대원 약 200명이 트럭에 나눠 타고 대기하고 있었다. 서울 문리대 정원의 4.19학생혁명기념탑 앞에는 데모계획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모여들었다. 나는 4.19기념탑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벤치에 앉았다. 자켓의 주머니에는 소형 카메라를 몰래 감추어 두었다.

11시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다. '역시 실패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 문리대 앞의 서울 의대 쪽에서 데모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황급히 달려가서, 이미 닫혀버린 의대 정문의 출입구에서 빠져나가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물러간 데모대에 따라붙었다.

데모대는 약 300명, 서로 스크럼을 짜고 손에 손에 결의문을 움켜쥐고 있었다. 선두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웃샤 웃샤'라고 외치면서 다시 서울의대 정문을 향하여 달려 나갔다. 나는 데모대를 목표로 셔터를 계속 눌렀다. 데모대와 일체가 되어 꿈속으로 달려 나갔다.

4월 18일 오후

점심 시간이 지나고, 약간 키가 큰 세 사람이 와서 우리들을 라이온스 호텔에서 다른 장소로 이송시켰다. 출발 직전에 수사관은, "하야가와의 공산당 관계를 조사한다. 3, 4일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나에게 소곤거렸다. 서로 '나쁜 상대에게 연루된 재난'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고도의 수단이라고 깨달은 것은 옥중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난 후의 일이었다.

우리들은 한 대의 차에 집어넣어졌다. 남산 터널을 빠져 나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꺾여진 아스팔트 도로로 들어갔다. 위장용의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구내에는 7, 8층 높이의 빌딩 두 개가 나란히 서 있고,

남산의 산허리를 도려낸 듯한 형태로 지하요새가 카키색과 흑색의 얼룩무늬로 은폐된 콘크리트 벽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다. 검은색 지프가 수십 대 늘어서 있었다.

'이것이 남산이구나'라고 직감하였다. 남산이란 KCIA의 고문이라든지 잔학의 상징적인 말이다. 몇 명의 병사가 카빈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광명을 볼 수 없는 긴 터널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암담한 예감이 들었다.

우리들을 태운 차는 5국 본관의 후문에 정지하였고, 먼저 지하실로 끌려들어갔다. 지하에 있는 조사실의 입구에는 '통제구역'이라는 표시의 램프가 붙어 있고, 철창 모양의 문은 자동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조사실은 복도 양쪽에 두 평 정도의 방이 10개 정도 늘어서 있고, 각각의 방에는 책상이 하나, 높은 천장에 램프가 하얗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 방을 본 후에 엘리베이터에 태워졌다. 엘리베이터 안의 표시판은 7층을 나타냈다. 기묘한 것은 6이라는 숫자가 표시판에서는 지워져 있었다. 복도의 곳곳에는 '통제구역'이라고 씌어져 있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다.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

마음속에서 어떤 각오를 재촉받았다. 스치듯 지나가는 직원은 가슴에 반드시 신분증명카드(사진부착)를 착용하고, 흘끗 우리들에게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이 때, "누가 비싼 놈(거물)이야?"라고 하는 직원의 질문에, 연행한 남자가 우리 쪽을 가리키며 턱을 치켜들어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옥중에서 하야가와씨로부터 들어서 알게 들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나는 7층 맨끝의 상당히 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방은 10평 정도로 더블 침대가 하나, 소파에

테이블, 욕실 겸 화장실이 붙어 있었다(하지만 더운 물은 나오지 않았다).

곧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사람은 50세 정도의 붉은 얼굴에 몸집이 작고, 눈을 자주 움직이는 남자다. 과장이라고 한다. 침착하지 못한 눈을 하고, 무엇인가 미안한 듯한 얼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또 한 사람은 금테 안경을 쓴 40세 정도의 남자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부드럽지만 두 사람이 웃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조사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과장이 한국어로 질문하고, 그것을 금테안경이 영어로 통역한 다음 기록하였다. 상대가 일본인인데 영어로 조사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조사내용은 치안국 외사과, KCIA 6국(학생 · 긴급조치 담당)에서의 것과 똑같았다. "왜 중복된 조서를 두 번, 세 번씩이나 받는 것인가? 외사과와 6국의 조서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자 5국에는 조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과장의 대답이었다.

창틀 바깥에도 격자 모양의 철망이 끼워져 있었고, 그 조그마한 틈으로 엿보이는 서울 시내의 광경은 화창한 봄 햇살과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저 멀리에는 서울 시내를 북쪽에서 에워싼 북악산이 보이고, 그 기슭에는 청와대와 진한 녹색 숲을 배경으로 한 중앙청(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가 있었다)의 둥근 돔 지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서울은 주위가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분지 안에는 고층빌딩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무허가(가건물) 주택이 뒤섞여 있다. 낮은 언덕의 중턱에, 이전에 하꼬방이라고 불렸던 빈민굴이 헐린 부지에는 도시계획도 없이 곧바로 지어버린 시민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었다. 지금 이 방에서 보이는 풍경은 전체적으로 하얀 빛이며, 하늘은 초여름을 생각나게 하듯이 새파랗고 높게 펼쳐져 있었다. 창 밑을 내려다보니, 콘크리트로 된 정원에는 검은색 지프가 몇 십대나 늘어서 있었다.

이 시기 '바깥세계'에는 우리들 일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본에서는 가족·친구·동료 등에 의해서 대책이 협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외무성 당국은 "쓸데없이 소동을 일으키면 한국측을 자극한다"며 정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조사의 중점은, ① 하야가와씨와의 관계 및 그의 '배후관계' ② 곽동의(郭東儀)씨와의 관계였다. 곽동의씨와 처음 만났던 것은 73년 9월 중순, 고향 마을 3번가(3丁目)의 민단 동경본부 내에 있었던 김대중선생구출위원회의 사무실이었다.

「주간현대」의 김대중 사건 특집 취재를 위해 담당편집자로부터 취재선을 지정받았는데, 그 중에 곽동의씨의 이름이 있었다. 그 전까지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 후 4, 5회 그를 취재하였을 때에도, 그는 김대중 사건의 범인이 KCIA에 틀림없다는 것, 김대중씨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김대중씨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로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또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비판, KCIA의 해체요구 등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74년 1월 초순에 일본으로 귀국한 후, 이철, 유인태군 등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대학,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표한다는 허락을 두 사람으로부터 얻었다) 「주간현대」에 기고하려고 했으나, 편집부의 판단에 의해 전면 게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 학생은 3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청 포위 데모의 계획이 있다"는, 말하자면 무난한 코멘트를 게재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곽동의씨로부터 나에게 전화가 와, "기사를 읽기는 하였지만, 가능하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나와 곽씨의 관계는 취재기자와 취재협력자의 관계 이상의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고 있었다.

① 이후락(전 KCIA부장) 실각의 내막

② 실각 직후, 이후락이 변장하고 한국을 탈출하여 그를 뒤쫓아 온 정일권(현 국회의장)에 대해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보장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③ 김대중씨의 건강상태(노이로제 증상)와 출국의 가능성.

KCIA 5국에서의 곽동의씨 관계의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문 "곽동의를 알고 있는가?"

답 "알고 있다."

문 "최초로 만난 것은 언제, 어디서인가?"

답 "73년 9월 중순, 취재를 위해 김대중선생구출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문 "곽의 소속단체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답 "김대중선생구출위원회 사무국장이며 매스컴 담당인 것 같다."

문 "김대중구출위원회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답 "김대중씨를 일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운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동경본부의 멤버가 많으며, 민단 반주류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문 "곽의 사상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답 "모른다. 민단 반주류파이기 때문에 한국의 박정희 정권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취재하는 동안에 KCIA의 해체와 민주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사회주의 용어를 들은 적은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민당의 AA연구 그룹의 우쯔노미야(宇都宮德馬) 의원 정도와 사상적으로는 가까운 것은 아닌가?"

문 "뭐라고! 우쯔노미야는 자민당 내에 잠입한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너석은 빨갱이잖아!"

나는 어이가 없어져서 '이래서는 무슨 말을 해도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다른 세계에 끌려들어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자민당의 비둘기파 그룹에 대해서마저도 빨갱이라고 부르는 KCIA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박정희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일체의 인물 그룹을 이상하리만큼 증오하고 있었다. 체제에 대한 비판자를 모두 빨갱이로서 단죄하는 것이다. 그들의 수법은 중세의 종교재판, 혹은 마녀사냥 그 자체라고 생각되었다.

옥중에서 학생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KCIA의 블랙리스트에는 조총련과 일본공산당뿐만 아니라 영국노동당, 미국의 케네디 상원의원, 라이샤워 전주일대사 등, 그리고 자민당 AA연구 그룹도 제1급의 적성분자(敵性分子)로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조사는 매일 단조로움을 더해 갔다. 식사는 보리와 쌀이 3 대 7인 밥과 국물, 김치로 구성된 메뉴가 하루에 세 번 나왔다. 식욕은 없었다. 18일부터 23일 오후, KCIA 남산분실을 나와 다시 라이온스 호텔로 되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방을 나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KCIA가 의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초조감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외부의 정보는 일체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울 시내의 풍경이 창 바로 밑에 있는데도.

조사는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행해지고, 때때로 예의 금테안경을 쓴 수사관 외에도 홀쭉하고 눈구멍이 움푹 패인 남자와 키가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남자가 사전 예고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몇 분간 나를 뚫어지게 쏘아본 후에 홱 나가 버리는 남자도 있었다. 정중한 어조의 남자부터 마구잡이로 위협하는 남자까지, 서로 바꿔가며 연달아서 드나드는 5, 6인의 남자들의

나에 대한 태도는 가지각색이었지만, 모두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캐어묻기 위해 나를 동요시키려고 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21일이었을까? 밤이 되자 피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진로'라는 소주를 내주었다. 마시고 있는 곳으로, 간부인 듯한 남자(이름은 물론 알려주지 않았다)가 들어오자 수사관은 일어서서 경례를 하였다.

그는 일본에는 만국박람회 때에 갔었다고 한다. 소년시대를 오사카에서 보냈기 때문에 당시의 동창생과도 만났지만, 그 때의 불쾌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오사카의 중학생 시절, 마라톤을 잘 해서 교내에서는 언제나 5위 이내에 들었다. 만국박람회 때 동급생을 만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 '그때, 조선인 따위에게 져서 분했었다'며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다. 왜 조선인이 마라톤에서 이겨서는 안되는 것인가?"

그의 태도에는 자신의 손 안에 일본인 사냥감을 움켜쥐고 있다는 포획자의 쾌감과 여유가 역력하게 엿보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생관광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발전도상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잔을 건넸다.

그가 돌아가자, 조용히 나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금테안경의 수사관이 동료에게 한국어로 소리를 낮추어, "그가 이용택(李龍澤 · 6국 국장)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수사관은 자신의 상사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극단적인 지휘계통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금테안경의 수사관은 잡담 중에 미국에서 반년 간 유학했다는 것, 유학시에 일본인 경찰관 모씨(某氏)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 등을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또 미국에서 체험한 미국 여성 이야기도 하였다. 조서는 때로는 일본어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졌다. 초조감이 더해져만 갔다.

21, 22일은 조서도 그다지 작성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직원의 태도에서 느껴졌다.

"언제 조사가 끝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수사관은, "하야가와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5월 1일 오후

밤 11시 경, KCIA 6국에서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피곤했다. 2일간 계속해서 조사를 받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동시에, 이유는 어찌 되었든 잠깐이라도 구치소에서 나가 바깥의 경치를 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기분전환이 된다.

하늘은 창을 통해 보이는 사각의 공간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늘 보아온 눈에 익은 넓고 커다란 하늘이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공기가 다르다. 좁은 철창으로 가로막힌 독방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공기를 무한히 맛보는 것이 가능하다. 자유, 자유, 자유가 필요하다!

꾸벅꾸벅 졸고 있으려니, 두 시간 정도 후에 자물쇠가 열리더니 세 명의 간수가 들어와 나를 끌고 나갔다. 소장실 옆의 넓은 방으로 가서는 혼자 기다리게 하였다. 5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추워서 와들와들 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쩌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가슴 속에 생겨났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자, 보통이를 안고 안경을 쓴 둥근 얼굴의 남자를 선두로 세 사람의 남자가 성큼성큼 발자국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둥근 얼굴의 남자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온 검사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통역과 서기라고 알려주었다. 왜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수면을 방해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내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조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다.

1974년 2월 17일 석방된 후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다찌가와씨와 하야가와씨

심문은 성명, 주소, 직업 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문 "하야가와는 당신과 함께 학생을 선동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하는가?"

답 "아니오, 학생을 선동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 "뭐라고! 하야가와가 자백했단 말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지 마라.(그는 눈을 크게 치켜뜨고, 벌떡 일어서서 고함을 쳤다) 이 자식아! 이철, 유인태 등도 선동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답 "학생을 만난 것은 학생운동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학생들이 외국인 기자를 만나서 실정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철 등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일본인 기자와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동, 고무라고 할 수는……"

통역 "아니, 이것은 단순히 단어의 문제이므로 신경쓰지 마세요. 검찰관을 화나게 하면 손해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동정적이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변호사를 대신하여 주지요."

그리고 나서 ① 학생운동의 이념, ② 곽동의씨와의 관계, ③ 73년 12월 말의 이철 등과의 접촉, ④ 74년 3월 31일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나의 행적 등, CIA에서의 조사와 중복되었지만, 질문 내용에는 '공산폭력혁명' '노농정권' '고무·선동·동조' 등의 용어가 의도적으로 잇따라 튀어 나왔다. 나는 모두 부인하였다. 검찰관은 통역의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서 때로는 나에게 고함을 쳤다.

검찰관 옆에는 이미 조직휘(趙直暉)군의 조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검찰관은 자신이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조서를 읽어 주었다.

문 "조직휘는 73년 12월 25, 26일 다찌가와가 이철 등을 만났을 때, 다찌가와는 곽동의로부터 한국에 가서 학생지도자인 이철, 유인태를 만나라고 지령받고, 학생의 이름을 지명하였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

답 "말도 안된다. 나 자신이 이철 등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왜 조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 "이상하지 않은가? 조직휘는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완전한 유도심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사 현장에 동석한 조직휘군의 '공술(供述)'을 축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곧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휴식하고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관은 처음의 호통 일변도의 태도를 바꾸어 때로는 웃으면서 담배(은하수)를 피우게 해 주었다.

5월 2일 오후

저녁식사 후에 세 번째의 검찰조사가 행해졌다. 불려갔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다시 옥사로 되돌아 왔다. 두 시간 정도 경과했을 때 다시 불려가자 검찰관이 말하였다.

"지금, 네 마누라를 조사하였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같은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누라를 만나고 싶을 것이다."

그때는 처의 눈물 흘리는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왜 처를 일부러 구치소 안으로까지 데려와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처는 아마도 구치소 안으로 연행되었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처와 그 가족의 신상에 누가 미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처를 다시 연행한 것은 분명히 나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리라.

조사는 나의 과거의 출입국관계에 집중되었는데, 통역은 종이쪽지에, '군법회의 직후 석방'이라고 써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검게 덮어씌워 버렸다. 검찰관이 자리를 비우자, 통역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석방은 한국정부의 정책입니다. 머지않아 부인과 재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절반은 기대하였다.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는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검찰관과 통역이 각각 강온책의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하야가와씨도 동시에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다른 검사가 들어와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거나, 또 하야가와씨 담당의 통역이 들어와서 나에게 하야가와는 모두 자백하였으니 당신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무엇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것일까? 자백할 만한 비밀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인가 중죄를 범해 버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기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검사는 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써 달라고 강요해 왔다. 그 내용은 "5월 1, 2일의 검찰관 조사는 자유롭게 동시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으므로 검찰관계관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자술서이다.

이 자술서가 나중에 1심 법정에서 모든 조사의 '공정함'의 증거로서 검찰측에 의해 이용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나는 확실히 마음이 좀 여렸던 것같다.

조서가 한국어로 씌어지기 때문에, 번역한 내용이 내가 이야기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고 해도, "그럴 필요 없다. 믿어라"라는 대답뿐이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이야기한 내용과 만들어진 조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나중에 옥중에서 학생에게 들은 바로는, 검찰관의 조서에서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쓴 조서에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도장을 찍어버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수사관이 지껄이는 말을 그냥 써넣는 경우도 많다. 그 고문에 의한 조서를 다른 관련 인물에게 보여주고, "자 봐라, 이 녀석도 인정하고 있다. 너도 빨리빨리 인정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라고 종용하는 것이 상투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5월 5일 오전

점심을 먹고 나서 KCIA 6국으로 불려갔다. 5월 1, 2일의 검사조서에는 내가 KCIA와 치안국 외사과에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은 내용이 씌어져 있다고 수사관이 말한다. 검사조서의 내용에 KCIA 조서를 뜯어 맞추는 작업이다. 수사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는

내가 학생에게 '활동자금'으로서 7천 5백원을 주었다는 것을 내 입을 통하여 들었다고 한다. KCIA 조서에는 '취재협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조서처럼 '활동자금'으로서 제공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나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불과 7천 5백원이 어떻게 활동자금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학생들이 매일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고, 수개월에 한 번밖에 집에서 잠자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학생에게 무엇인가 불고기라든지 맛있는 것이라도 먹여 주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활동자금으로서 건네주었던 기억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수사관은, 라면보다 불고기를 먹으면 스테미너가 생기고, 스테미너가 생기면 데모를 하기에도, 행동을 취하기에도 좋아지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억지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 학생들을 키워준 부모가 먼저 체포당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사실에 다른 정보부 직원이 들어와서 로커를 열쇠로 열고 있다. 흘끗 보니 두께 10센티미터 정도의 책이 꽂혀져 있었는데 '중앙정보부사'라고 되어 있어 아마도 극비자료인 듯 하였다. 직원은 근처의 의자에 앉아 때때로 빈정거리는 듯이 나를 쳐다보면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시내의 식당에서 불고기 파티라도 하는 것인지 간부인 듯한 남자가 200명 분의 예약을 전화로 하고 있었다. 200명이라는 숫자는 6국의 직원 및 관계자의 수일까? 밤 8시가 지나서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수사관들이 되돌아왔다.

아마 이 시기는 학생 사냥이 거의 끝나, 말하자면 KCIA 나름으로 '한숨 돌리는' 단계였던 것일까? 나중에 옥중에서 학생들에게 들은 것이지만, 6국의 긴급조치 관계 체포율이 200퍼센트에나 달했다고 한다.

결국 소기의 '체포목표'의 배에 달하는 사람을 얽어매어 집어넣은 성과에 그들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이다.

6월 11일 오전

기소장이 도착하였다. 죄명에는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외에 반공법, 국가보안법, 내란선동죄 등 기막힐 만한 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나는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혐의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에게도 반공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에 의문을 느꼈다. 반공법은 최고 사형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어서 기소 사실을 읽었다.

'조총련의 비밀조직원 곽동의로부터 지시를 받아……'

'유혈폭동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노선에 따른 노농(勞農)정권의 수립……'

'무력봉기에 필요한 무기는 북으로부터 공급……'

'일본공산당 학생들과 접촉……'

'거사비용 7천 5백원……'

기소장은 한글과 한자의 혼용으로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뭐야, 이것은?'이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날조도 여기까지 오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범죄내용이 마치 사실처럼 열거되고 있다.

'잘 다듬어진 작문이구나.'

기소장을 읽고, KCIA가 무엇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게 되었다. 놀랍다기보다 멍해져 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공이 되

어 버린 당혹스러움과 비슷한 감정이 생겼다.

간수가 들여다보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간수를 향하여 호통을 쳤다.

"한국정부, 나빠요. 왜 이런 있지도 않은 기소장을 만드는가?"

간수에게 말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역할을 연출당하려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불안을 간수에게나 누구에게라도 부딪쳐서 발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간수는 눈을 깜박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일깨우듯이 소리를 지르고 웃자, 간수는 조용히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기소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미친 짓이다. 누가 이런 기소내용을 믿을 것인가? 그러나 KCIA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자신만만하게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이 녀석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인이라도 이용한다는 국가의 거대함이 어렴풋하게 나를 짓누르려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6월 12일 오후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서 책상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편다거나 하면서 시간과 날짜가 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날이다. 마루바닥을 보면 장기판이 새겨져 있거나 수인(囚人)의 이름, 날짜 등의 낙서가 있었다. 낙서는 수인을 위한 휴식일까?

철창의 안쪽에 갇히게 되면 처음에는 미친 듯이 벽을 두드리고, 철

창을 붙잡고 내보내 달라고 외친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스스로 식사를 끊고 신체를 쇠약하게 만들어 입원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헛된 노력을 하기도 했다. 진지하게 탈옥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잠시 지나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싫든 좋든 간에 알게 된다. 허무한 시간이 흘러간다.

낙서라도 하지 않는 한 억눌려진 긴장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강박관념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서를 하더라도 볼펜 따위는 입수할 수 없다. 내가 취했던 방법은 치약을 감시창 옆의 벽에 가득 칠한다. 감시창 옆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더라도 간수는 알지 못한다. 치약이 마를 때까지 방안에 치약 냄새가 가득 퍼진다. 이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마치 바깥 세계를 산책하고 온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된다. 치약이 마르면 그 위에다 대나무 젓가락으로 낙서를 한다. 이상숙, 이상숙, 이상숙…… 나의 처, 이상숙. 이전에 함께 놀던 비원과 경복궁에서의 생각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녀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대신 내가 이전에 여행했던 덴마크와 영국, 아일랜드 등의 길모퉁이 장면이나 만났던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충 생각을 떠올리고, 친구의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해 냈지만, 읽을 책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감방의 낙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날짜 표시이다. 만기출소의 달력이 매월, 못이나 유리(운동하러 나갔을 때에 주워 온 것이리라)로 꼬박꼬박 새겨져 있었다. 대학 이름, 그리고 세 글자의 성명도 많다.

'통일'이라고 한글로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는 '통일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씌어져 있었다. 날짜는 1966년 5월이다. 아마도 반공법으로 잡혀들어 왔던 사람이 쓴 것이리라.

그는 출소하였을까? 아니면 아직 어딘가의 교도소에서 힘들게 복역하고 있는 것일까? 새삼스레 통일의 최대의 적대자이며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이름도 없는 일본인까지도 이용하는 KCIA와 박정희 정권에 분노를 느꼈다. 또한, 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국인이 쓴 '통일'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좌절을 느껴가고 있던 내 자신의 마음을 분발시킬 수 있었다.

6월 13일 오후

점심 식사 후에 담당인 안경을 걸친 이(李) 검사가 구치소로 왔다. 기소장을 읽은 감상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창작문에 감상도 무엇도 있었을 리는 없다. 통역은 동행하지 않고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였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뒤섞어서 이야기하였다.

다찌가와 "기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을 나는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은가?"

검사 "아니, 이것은 주변으로부터의 증언이다. 조직휘, 하야가와, 이철, 유인태 네 명이 증언한 것이다. 당신이 부인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솔직하게 인정하면 나갈 수 있다. 오늘 변호사 면회를 허가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변호사가 오겠지만 나와 만났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

내가 기소사실의 내용에 관하여, "전부 반론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하면서 두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자, 검사는 "온리 투?(Only two)"라며 겨우 마음을 놓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두 가지만이 아니라 전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 날 검사는 나의 반응을 조사하러 왔던 것이리라.

검사가 돌아간 후, 태윤기(太倫基) 변호사가 왔다(두 번째). 나는

자신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불안과 당혹스러움을 토해내듯이 말하였다.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대사관은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기소장을 읽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틀립니다. 조총련의 스파이라는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연거푸 말하자, 그는 옆의 기록계를 '주의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흘끗 보고, "하지만 조직휘, 하야가와, 이철, 유인태의 관련조서를 보면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당신만 부인하고 있다. 재판장의 입장이 되었다면 누구를 믿을까? 잘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면 태변호사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던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때는, '어, 이거 이상한데? 검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면회에서는 "당당하게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세요"라고 말해 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태변호사를 일본대사관이 선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측의 방침이 바뀌었다. 아도미야(後宮) 대사(당시)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친한 사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들이 정론을 펼쳐 당국과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고, 한일 양국 정부간의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가?'

일본대사관측이 태변호사에게, "언쟁하지 말고 부드럽고 모나지 않게 재판을 끝내고……"라고 어드바이스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나중에 옥중에서 들은 것이지만, 사선(私選) 변호인은 전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KCIA에 불려 들어가 재판에 협력하도록 강요받았고, 서약서를 쓰게 하였다고도 한다. 대부분의 피고는 경제적 이유와 스스로 선임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2차 기소된 학생의 경우에는 변호사

를 선임하라고 하는 통지에서부터 공판까지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역할은 '기소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기원하라'고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뿐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안양교도소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법정에서의 변호인 변론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해도 국선변호인은 허무하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한편, 태변호사는 이전의 항일운동의 투사이기도 하고, 지금도 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KCIA로서도 철저하게 마크하고 있는 인물이다. 학생들은 나에게 태변호사가 배당된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태변호사에게는 요즘 상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KCIA의 압력에 대항하여 몸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적인 변호활동을 해 주었던 태변호사에게는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이 시점에서는, 나는 정치적 해결이라는 환상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태변호사 말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한국측 ↔ 일본대사관 → 태변호사라는 도식이 머리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첫번째 변호사 면회(5월 22일) 다음 날 구치소에 온 KCIA 수사관은, 태변호사가 일본대사관에 의해서 선임되어 빈번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나에게 소곤거렸다. 또한 변호비용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였다. 정치적 해결이라는 말과 환상이 모든 사고의 축이 되어 있었다.

귀국 후 '구원모임'에 의해서 알게 된 바로는, 첫번째 변호사 면회 직후에 태변호사는 KCIA 6국에 연행되어 다음날 아침까지 혹독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1975년 2월 16일 오후

다음날인 16일 오후,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족면회가 실현되었다. 아버지, 동생, 그리고 처, 대사관의 데시마(手島) 일등서기관과 태변호사도 함께 왔다. 처와는 74년 4월 5일, KCIA 6국에 연행되었던 날 아침에 헤어진 이래 실로 10개월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사관 직원과의 면회는 내가 치안국 외사과에 연행되었을 당초부터 요구해 왔던 것이지만, 74년 4월 12일, 치안국 사무실에서 데시마 일등서기관과 불과 20분 정도 만나서 사정을 청취한 이래 이것도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변호사 면회는 6회째였지만, 실로 3개월만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민청학련' 사건의 하나의 특징은 피고인이 가족면회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 같다. 가족면회가 실현되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 곧바로 밝혀지게 되었을 것이고, 검찰측의 생각대로 조종당하는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족면회에는 군법회의의 법무사와 보안과장이 입회하였다. 나는 검사로부터는 '대통령 특사에 의한 석방'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확인하기 위해 태변호사에게 묻자 '구속 집행정지'에 의한 석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네요?"라고 이번에는 데시마 일등서기관에게 묻자, 그는 허리를 숙이며 "아니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의 말을 얼버무렸지만, 정치적 해결이기 때문에 재구속의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데시마 일등서기관의 말은 신용할 수 없었다. 74년 4월 12일의 첫 번째 면회에서는 '군법회의까지 가지 않는다'고 명언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30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박정권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최대 적대자인 민주적 학생과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배후 인물로서 우선 '인민혁명당' 그룹을 날조하였다. 더 나아가 74년 4월 5일에 검거한 일본인 두 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본의 김대중선생구출위원회의 곽동의씨를 취재를 통해 알고 있다는 사실과 하야가와씨가 전 일본공산당원이었던 사실, 이 두 가지 점을 최대한으로 짜맞춘 다음 한국의 신문지상에는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뒤죽박죽이 된 보도를 하게 만들고 있었다.

매우 훌륭하게도 석방 직전인 2월 15일 오전, 면회를 왔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들 일본인이 학생들과 만난 것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다찌가와 ↔ 곽동의, 하야가와 ↔ 일본공산당의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심에서 우리는 ① 학생과의 회합은 취재목적, ② 곽동의씨로부터의 비밀지령은 일체 없다는 것 등을 분명히 했기 때문인지, 제2심 공판정에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검찰측 논고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민청학련' 사건에서의 나의 역할이, 처음에는 '조총련의 스파이'였지만 '적군파 활동가'로 바뀌어 버렸다. KCIA에 의해서 '일본공산당'과 '적군파'가 한국 땅에서 공동투쟁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한국측에 있어서는 일본공산당이나 적군파는 동일한 것으로 밖에는 비쳐지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들 일본인이 석방된다고 하는 정보가 옥중에 전해지자, 지금까지 응대를 거부하고 있었던 간수들도 경계심을 풀고 악수의 손을 내밀게 되었다. 다른 수형자들도(살인범이나 사기범도 있었지만) 모두 기뻐해 주었다. 우리는 15일부터 석방 당일인 17일까지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었지만, 자신의 일처럼 석방을 기뻐해 주느라고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수인도 있었다.

처음 알게 된 일본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인도 있었다. 나는 68년 봄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래, 17회에 걸쳐 현해탄을 왕래하였고 '한국인' 처도 얻었다. 그러나 한국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감정의 굴곡과 생명, 강인한 정신력을 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만큼 프라이드가 강한 국민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긴급조치 위반자만 보더라도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직업은 학생, 작가, 교사, 교도소 간수, 일본어학원 경영자, KCIA 현역 과장, 전 국회의원, 경찰관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학생들은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의 녹색 커버를 씌운 『세계의 역사』 시리즈라든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돌려 읽는다든지, 매일 몇 페이지씩이지만 일본어 공부를 겸하여 읽고 있었다.

반일의 슬로건을 내건 그들은, 자주 일본인인 나에 대하여 한국학생의 반일운동에 관해 의견을 물어 왔다. 어느 학생은 나에게 교도소에서 만난 기념으로서 영어책을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본의 소설을 선물하였다. 이러한 그들, 2월 15일 밤 석방 직후의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학생들은 74년 9월의 2심 법정에서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1974년 2월 17일 오후 4시, 나는 안양교도소를 나왔다.